

# 제12회 함께걷는아이들 창작동시대회 '있다! 없다?'

## 수상작 안내



### ▣ 심사개요

- ▶ 심사대상 : 제12회 함께걷는아이들 창작동시대회 공모작품 2,350편 중 심사대상 2,341편
- ▶ 심사기간 : 2026년 6월 8일 ~ 6월 30일
- ▶ 심사자 : 박경장 문학평론가, 장세정 동시작가, 김유진 아동문학평론가
- ▶ 심사기준
  - 진실성 (나의 생각과 언어를 흉내 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정직하게 담아내고 있는가)
  - 창의성 (사물과 대상에 대한 관찰력과 상상력이 독창적이고 풍부한가)
  - 예술성 (글의 짜임새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 주제적합성 (동시대회의 주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 공모주제 : '이야기'에는 \_\_\_\_\_(이/가) 있다! 없다?  
(이야기를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소재를 생각해 보고 나의 생각과 느낌을 동시에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 수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나다순)

▣ 대상 (1명)

아동명	소속	학년	작품명
박세연	꿈과재능지역아동센터	6	이야기에는 탁구가 있다

▣ 최우수상 (3명)

아동명	소속	학년	작품명
박민음	페트라비전학원	6	생쥐의 비밀
전재인	서울아주초등학교	4	심장이 있는 이야기
황인서	영운지역아동센터	4	이야기에는 빗방울이 있다

▣ 우수상 (30명)

아동명	소속	학년	작품명
강지유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6	이야기에는 옷이 있다
고은성	진월초등학교 도서실	4	이야기 잔소리꾼
김가민	금락지역아동센터	5	배고픈 이야기
김수현	대구도남초등학교	6	내 어릴 적 추억이 있다!
김울곡	서대전초등학교	5	이야기에는 와이파이가 없다
김주아	안산 양지초등학교	2	이야기에는 내가 없다
김채윤	우리들지역아동센터	4	외계어
김태이	서울 잠원초등학교	6	이야기에는 글자가 있다! 없다?
르찬지(이민지)	열린자리지역아동센터	2	강물이 들려주는 이야기
문보영	이리영등초등학교	6	숲 친구 할아버지
문효주	수원 천천초등학교	5	가족
박하늘	영천초등학교	4	이야기와 그림자
배시윤	당정초등학교	2	내가 본 밤바다 이야기에는
손서은	서산예천초등학교	4	아무도 모르는 속마음
안태인	리딩오션 범어동천점	6	소리 없는 대화
양은서	광혜원지역아동센터	4	이야기에는 다툼이 없다
양해인	월촌초등학교	6	가장 무서운 이야기
연지환	울목초등학교	4	영웅은 없다
유상운	나래다함께돌봄센터	2	이야기에는 치킨이 있다

아동명	소속	학년	작품명
이루연	홍대부속초등학교	6	나는 이야기
이서진	세종나래초등학교 5학년	5	네
이수아	서울계남초등학교	5	이야기 무지개
이여름	서울개포초등학교	3	이야기에는 나만 눈치가 없다
임단비	광양 옥룡북초등학교	4	일진
임현서	응암초등학교	5	나의 정체
장지우	우리들지역아동센터	3	죽을뻔한 이야기
정혜윤	춘천부안초등학교	2	민들레 이야기
조서윤	서울도성초등학교	3	믿음
최승빈	꿈과재능지역아동센터	6	이야기에는 구름이 있다
최아윤	대구 동평초등학교	5	이야기에는 외계인이 있다

▣ 장려상 (40명)

아동명	소속	학년	작품명
강서준	그린나래 독서논술	2	비행기를 타고 무지개를 봤다
고하연	금락지역아동센터	6	이야기에는 사랑이 있다!
권하윤	인천부일초등학교	5	이야기 노래
김가빈	갈매초등학교	3	이야기에는 끝이 있다 없다?
김다엘	신상도초등학교	2	우리들의 이야기
김유미	늘푸른지역아동센터	3	아빠 이야기에는 내?가 있다
김재하	안산 양지초등학교	2	이야기에는 재미가 있다
김지영	진월초등학교 도서실	6	끝
김채운	춘천부안초등학교	5	어디든 가는 신발
김하윤	꿈사랑지역아동센터	2	이야기에는 하늘이 있다
김하울	나래초등학교 3학년 다솜반	3	이야기 바람
문태영	이리영등초등학교	3	안 되는 내가 없다
박나은	세종나래초등학교 5학년	5	절대로 아님
박미나	도동지역아동센터	3	출렁이는 파도
박주원	서울대치초등학교	4	이야기에는 다이어마이트가 있다
박지효	늘푸른지역아동센터	3	그림책
서윤성	목운초등학교	5	약당
서지민	리딩오션동호센터	3	내 친구 이야기에는 정신이 없다
서하나	좋은터지역아동센터	4	내 꿈 이야기
성규리	서울 양진초등학교	4	이야기 시간여행

아동명	소속	학년	작품명
신장미	꿈마을지역아동센터	3	이야기에는 숲이 있어요
안예은	동해지역아동센터	6	나의 이야기에는 라면이 있다
에즈라	금락지역아동센터	2	맛있는 이야기
오하성	중랑구6호점 목1동우리동네키움센터	2	바지 주머니
유서준	송내지역아동센터	4	이야기에는 왕자가 있다
유예빈	서울잠현초등학교	4	이야기에는 그리움이 있다
윤성빈	리딩오션 범어동천점	4	이야기전
이다정	동해지역아동센터	2	이야기집
이예준	책들레 독서논술	4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재호	아낌없이주는나무지역아동센터	4	엄마의 고향 베트남속 이야기
이하린	사동지역아동센터	2	바다만 자꾸 파래져요
임성균	리딩오션동호센터	6	졸음 요정이 숨어 있어요
임시우	햇빛학교지역아동센터	4	이야기에는 그림이 있다
임재윤	화목지역아동센터	3	이야기 쓰는 연필
임지훈	도담지역아동센터	6	이야기에는 피자가 있다
정윤하	책먹는아이들	3	좋아하지만, 조금 아쉬운 이야기
정혜윤	서울목운초등학교	6	할머니의 이야기엔 추억이 있다
정혜인	춘천부안초등학교	5	할머니의 향기
조혜울	다정초등학교	5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다
황중민	늘푸른지역아동센터	2	이야기에는 친구가 있다

▣ 특별상 (20명)

아동명	소속	학년	작품명
김리나	광혜원지역아동센터	4	나만의 자유로운 스타일
김민주	아란지역아동센터	5	어머니 이야기에는 사랑과 정이 있다
김백한지	도동지역아동센터	4	나의 꿈
김서하	대도초등학교	4	이야기엔...
김아린	미사중앙초등학교	4	창문 엿듣기
김지윤	서울불광초등학교 6학년2반	6	등장인물
도현재	매호지역아동센터	6	강아지
문수빈	좋은터지역아동센터	2	아빠의 라떼 이야기
박서윤	한빛교실지역아동센터	5	내 단짝
박소이	청림초등학교	3	꿈

아동명	소속	학년	작품명
손민수	광혜원지역아동센터	6	먹을 수 있는 자유
신수빈	햇빛학교지역아동센터	6	이야기에는 행복이 있다
신하윤	책들레 독서논술	1	이야기 속에 동물이 있다
심규희	꿈과재능지역아동센터	6	이야기에는 뜨개질이 있다
양지은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5	이야기에는 감정이 있다
염지유	서울 월촌 초등학교	6	나의 블랙홀
윤서빈	리딩오션동호센터	4	마르지 않는 샘물
이정민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6	이야기 같은 인생
전다희	상현초등학교	6	이야기 실타래
정유하	시곡 초등학교	4	책 뷔페

## ■ 심사총평

### 심사평 <이야기 짓는 인간>

박경장 심사위원

신들의 이야기라는 '신화'를 영어로는 '미스(myth)'라 합니다. 미스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미토스(mythos)'에서 왔는데 바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전,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힘 앞에 무기력한 인간은 어떻게든 자연을 이해해야 했어요. 그래야 자연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은 것이 신화 즉 이야기였습니다. 천둥·번개는 천신 제우스가 노한 것이고, 화산의 폭발은 불의 신 헤파이토스가 노한 것이며, 바다의 풍랑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노한 것이라고요. 물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인간의 사랑·미움·분노·불화의 원인까지도 모두 신들이 개입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지어 이해하려 했지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마주할 때마다 이야기를 지어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야기 짓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신화적 세계·인간관 속에서 자연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연 만물에 신들과 요정이 깃들어 인간과 더불어 살았지요. 이승에서 억울하게 죽은 인간의 영혼과 육신은 저승에서 자연물로 변신해 신들의 세계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로 신들의 세계에 발을 들였고, 이야기로 기억되며 전해졌습니다. 삶 자체가 곧 이야기인 세계였지요.

16-17세기에 들어 서구는 이성에 눈을 뜬 개인들을 통해 근대의 문을 엽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지요. 사실과 진실을 앞세운 과학문명은 자연에 깃들어 있던 신들과 요정을 상상과 믿음의 세계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온 인간의 삶 또한 점차 미신으로 규정되며 문명의 주변부로 밀려났지요. 자연에 깃들어 인간과 더불어 살아온 신들의 이야기 또한 자연스레 사라져갔어요. 대신 복잡한 도시 문명 속에서 고독한 개인의 존재를 탐구하는,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예술적인 새로운 이야기, '소설(novel)'이 탄생했습니다.

글 종류 중 가장 늦게 탄생한 소설은 인간의 생각이 미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 속으로 들여와 가장 대중적인 문학장르로 발전했습니다. 더불어 20세기 새롭게 등장한 영상매체(TV, 영화)에 마르지 않는 이야기를 제공하는 거대한 이야기 호수가 됐지요. 이렇듯 인간은 이야기로 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도시문명 속 개인을 탐구하며, 인간 삶의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소통하며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는 인류의 핵심 DNA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사건은 단연 인공지능 AI의 놀라운 발전입니다. 최첨단 과학이 낳은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여 텍스트·이미지·음악 등을 스스로 창작합니다. 인간의 마지막 영역이라 여겼던 문화예술 창작에까지 과학기술이 대신하는 세상이 온 것이지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야기 짓는 인간'에서 듣고 보고 즐기지만 하는 '이야기 관객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보니 할머니 무릎베개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었다는 말이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2026년 제12회 <함께걷는아이들> 창작동시대회 '이야기에는 \_\_\_\_ (이/가) 있다! 없다?' 출품된 동시들을 읽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탄생과 발전 변화'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과 형식은 변해왔으나 인류는 이야기 짓는 창작 행위를 멈춘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미래의 인류는 어떨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창작과 노동의 의미 또한 새롭게 질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에서 태어난 인간이 이야기를 멈출 때, 거슬러 오를 물줄기가 끊긴 인간의 신화는 막을 내릴지도 몰라요. 그 갈라진 강바닥에 인간을 대체한 인공지능이 테크노 제국의 신화를 건설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동심은 마음의 처음이고, (동)시는 언어의 처음입니다. '이야기에 무엇이 있고 없는지,' 인간 신화의 첫 이야기 샘플에 가닿으려는 동시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고마운 이유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야기(시) 짓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야기가 사라질 때 지구는 더 이상 푸른 별이 아니라, 빛바랜 회색 돌덩이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 심사평 <스스로와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

장세정 심사위원

이야기는 삶을 보여주면서 새롭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읽거나 말하는 행위는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재구성하는 일이니까요. 과연 어린이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경험하고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올해의 주제인 '이야기에는 \_\_\_\_ (이/가) 있다! 없다?'를 통해 어린이들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만나는 이야기에 대해 썼습니다. 상상력과 주인공, 반전과 결말 그리고 주제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삶과 견주어 보며 상상과 현실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들 가운데 현실과 상상 사이를 냉정하게 분별하는 시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책 속의 상상력에 자신의 상상을 더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는 시들도 있었습니다. 인어왕자를 찾아내거나 외계인의 언어를 번역하거나 생쥐의 입장이 되어 인간의 이야기를 모으거나, 자신이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능청스럽고 활달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시에서는 활달한 이야기꾼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어린이들의 상상력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야기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삶 자체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들도 많았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요소니까요. 자신의 이야기가 나비처럼 다정하게 누군가에게 스미길 바라는 시, 어머니나 친구와 이야기와 말이 잘 통하지 않아 고통을 느끼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남을 긍정하고 위로하며 연결되고 싶어하는 시들이 있어 참 반가웠습니다. 이런 시를 통해 어린이가 삶을 알고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신중하고 다정하면서도 강한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인지 심리학자 제롬 브루너는 인간이 논리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이야기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시를 쓰는 동안, 책 속 주인공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익숙하거나 낯선 소통을 통해, 몸으로 살아낸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확장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교사로서 창작자로서 제 삶을 다시금 살피고 추스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한 시를 써서 보내 준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박수와 사랑을 보냅니다.

## 심사평

김유진 심사위원

이번 제12회 함께걷는아이들 창작동시대대회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자신이 직접 쓴 시와 그림을 정성껏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시가 인간처럼 글을 쓰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인간이 글을 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어린이들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시제는 마침 '이야기'여서 심사위원들은 어린이들의 시를 통해 이야기, 시, 글쓰기, 문학, 언어, 삶 등을 두루두루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라는 시제는 한 편의 시 자체와 아울러 시를 쓰는 자신까지 성찰할 수 있는 주제이므로 이에 대한 어린이의 생각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린이에게 그리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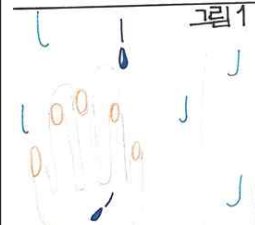

세 명의 심사위원은 올해에도 2,350편이나 되는 많은 응모작을 읽고 그중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솔직하고, 유려하고, 독특하게 들려준 작품들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어린이의 시나 산문을 평가하는 기준이 대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지난 십여년 간 이 대회에서 어린이의 작품을 평가한 기준이 많은 어른들에게 가닿았길 바랍니다. 어린이의 글쓰기를 교육하고, 교육의 지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하는 이들은 바로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시가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풍부한 글을 쓸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글을 쓰는 인간은 없습니다. 어린이의 글쓰기는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가 자신의 삶을 솔직하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를 언어로 표현하고, 이 언어가 다시 어린이의 삶을 비추는 과정이 되는 글쓰기를 여전히 기다립니다.

수상작으로 선정한 어린이들의 글에서는 바로 그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자신과 타인과 세계를 담아내고, 이야기를 통해 다시 그들과 연결되는 아름다운 순간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순간을 많은 어린이, 어른들에게 선보이고 나눌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시대회 수상작으로 세상에 나온 작품들이 앞으로도 오래 오래 우리 가운데 남아있길 바랍니다. 한 명 어린이의 시가 여러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비추길, 한 가닥 노래로 울리길 바랍니다.

▣ 대상후보작 최종심사 총평

**대상 심사평**

제12회 함께걷는아이들 창작동시대회 '이야기에는 \_\_\_\_\_(이/가) 있다! 없다!'에는 총 2,350편이 응모했으며, 그중 세 편이 대상 최종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이야기에는 빗방울이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황인서(4학년)</p> <p>빗방울이 하나..둘.. 셋.. 금세 새어 보니 수억만천 개가 떨어졌다. 그 중에 나에게 떨어진 빗방울은 딱 한 개, 어디 갔나 찾아보고 있다가 내 손가락 사이에서 찾았다.</p> <p>차 앞 유리에 고인 빗방울 와이퍼로 지워내기엔 너무 아깝다.</p>	<p>이야기에는 "빗방울"이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황인서</p> <p><u>빗방울이 하나.. 둘..</u> <u>셋.. 금세 새어 보니 수억만천</u> <u>개가 떨어졌다. 그 중에 나에게</u> <u>떨어진 빗방울은 딱 한개, 어디</u> <u>갔나 찾아보고 있다가 내 손가락</u> <u>사이에서 찾았다.</u></p> <p><u>차 앞 유리에 고인 빗방울</u> <u>와이퍼로 지워내기엔</u> <u>너무 아깝다.</u></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 1</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 2</p>  </div> </div>
---	---

「이야기에는 “빗방울”이 있다」는 여운이 짙게 배어나는 시입니다. 무한에 가까운 빗방울 중에 내게 떨어진 단 한 방울. 그것도 손가락 사이에 감춰져 어렵게 찾아냅니다. 자신에게 떨어진 빗방울 하나에서 시인은 무슨 의미를 발견했을까요. 시는 이를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 앞 유리에 지워지는 수많은 빗방울을 아쉬워할 뿐. 멍멍해진 독자는 행과 연 사이의 여백에 머물며 흐르는 빗물을 바라봅니다. 혹시 그 빗방울 하나가 기적처럼 태어난 나일까? 아니면 나에게 다가온 너였을까?

## 생쥐의 비밀

박민음(6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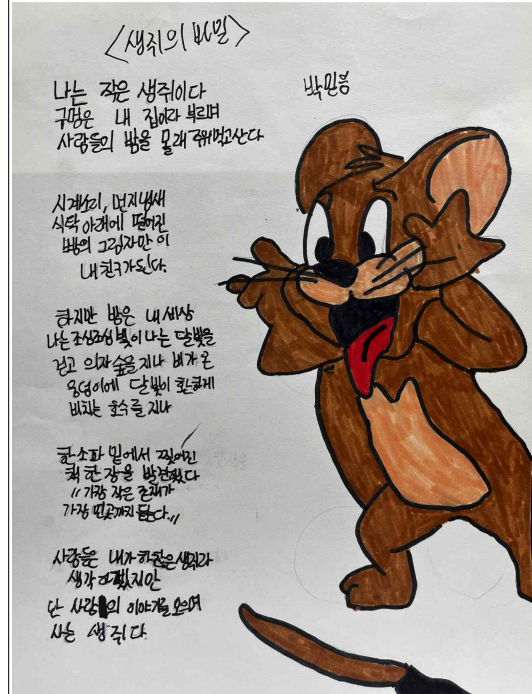
나는 작은 생쥐이다.  
구멍은 내 집이라 부르며  
사람들의 밤을 몰래 주워먹고 산다.

시계소리, 먼지냄새  
식탁 아래에 떨어진 빵의 그림자만이  
내 친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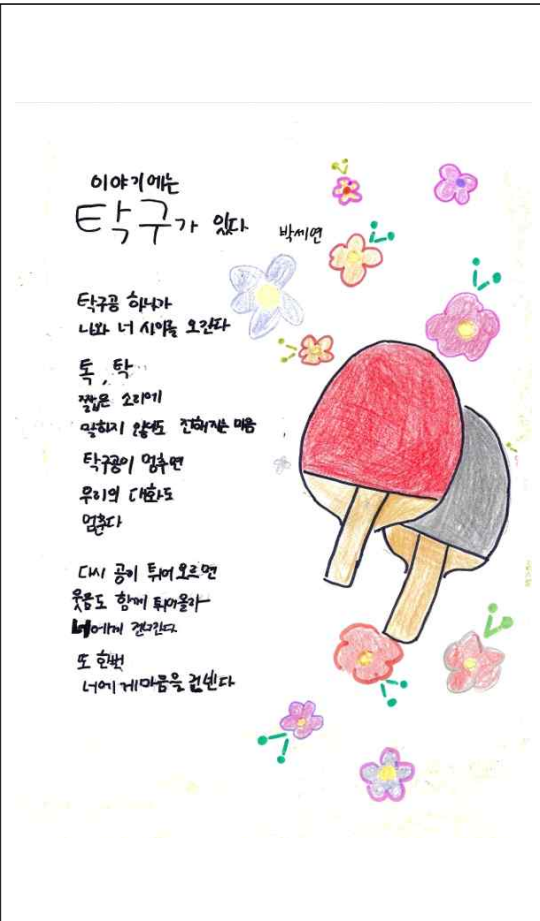
하지만 밤은 내 세상  
나는 조심조심 빛이 나는 달빛을  
걸고 의자 숲을 지나 비가 온  
웅덩이에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호수를 지나

한 소파 밑에서 찢어진  
책 한 장을 발견했다.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먼 곳까지 듣는다."

사람들은 내가 하찮은 생쥐라  
생각하겠지만  
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는 생쥐다.



「생쥐의 비밀」은 예술성이 돋보인 시입니다. 어린이가 지은 시라고 하기엔 표현, 어조, 상상 전개가 매우 성숙합니다. "사람들의 밤을 주워 먹고 산다"는 표현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음습한 시각·청각·후각 이미지가 만들어 내는 어두운 어조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시상 전개가 놀랍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이야기에는 탁구가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박세연(6학년)</p> <p>탁구공 하나가 나와 너 사이를 오간다.</p> <p>탁, 탁 짧은 소리에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탁구공이 멈추면 우리의 대화도 멈춘다.</p> <p>다시 공이 튀어오르면 웃음도 함께 튀어올라 너에게 건너간다.</p> <p>또 한번 너에게 마음을 건넨다.</p>	 <p>이야기에는 탁구가 있다 박세연</p> <p>탁구공 하나가 나와 너 사이를 오간다</p> <p>탁, 탁 짧은 소리에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탁구공이 멈추면 우리의 대화도 멈춘다</p> <p>다시 공이 튀어오르면 웃음도 함께 튀어올라 너에게 건너간다 또 한번 너에게 마음을 건넨다</p>
--	--

「이야기에는 탁구가 있다」는 완성도가 높은 시입니다. 정교한 행갈이와 연 구분으로 생동감 있고 정겨운 가락이 울려나게 합니다. 1연의 “오간다”, 2연의 “멈춘다”, 3연의 “건넨다,” 동사 셋이 마치 탁구공인 듯 ‘대화’와 ‘웃음’과 ‘마음’을 탁, 탁, 나와 너에게 배달합니다. 시의 가장 큰 특징인 운율 위에 정서가 자연스럽게 얹혀, 읽는 이의 눈과 입을 착 달라붙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렇게 최종심에 오른 세 편의 시는 저마다 도드라진 장점이 있어, 객관적인 우열을 가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작품 자체의 우열을 가리기보다, 앞으로 어린이들이 시를 쓰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작품을 대상으로 삼자는 데 세 심사위원의 뜻이 모였습니다. 대상은 「이야기에는 탁구가 있다」의 박세연 어린이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심사위원 박경장, 장세정, 김유진 (정리: 박경장)